

## 林業勞動의 組織化問題

李麗夏 / 建國大學校 教授

農村에서의 人力難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같은 現狀은 農村의 人件費上昇을 부채질 할뿐 아니라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시켜 여러가지 社會問題로 제기되어온지 오래다.

林業에 投入되는 勞動은 農村의 단순노동에서부터 專門技能을 要하는 林業勞動에 이르기까지 山林施業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과 성질이 多樣化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農村의 단순노동을 要하는 造林과 撫育事業은 地域勞動의 範疇에 속하여 그간 地元住民에게 雇用増大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는 農家の 農外所得面에서의 比重도 커서 山林事業이 地域經濟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1960년 이후 1970년대에 이르는 山林復舊를 위한 治山綠化期間에는 當時余裕있는 農村勞動力을 充分히 흡수 活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事業을 無難히 成功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農村이나 山村에서의 農業勞動에 의한 山林事業의 成功的인 수행을 期待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實情에 놓여 있다.

이는 産業化에 따른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나타나는 離農現象의 결과로 農村人口의 絶對不足과 더불어 남아있는 勞動力마저老

令化 내지 婦女化되는 傾向이므로 이들 農業勞動에 의한 山林事業의 成功을 期待하기란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특히 山林事業이 農業과 달리 主로 雇用勞動에 의하여 이루어 질뿐 아니라 所要되는 勞動量이 많고 또한 季節的인 事業이 많기 때문에 適期에 實施하지 못하면 事業運營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治山綠化를 위한 山林復舊期에는 豊富한 周邊의 勞動力을 利用하여 年間 10萬ha 이상의 造林도 無難히 遂行하였으나 이제 그 造林面積이 점차 줄어들어 當時의 1/3~1/4의 面積으로 減少된 狀況인데도 이를 위해서는 甚한 人力難과 人件費의 上昇등이 事業에 큰 어려움을 겪게하고 있다.

一般적으로 山地에 일정한 樹種을 造林하여 伐期까지 들어간 經費의 原理合計算을 育林費라 할때 育林期間을 40年으로 잡고 조사한 육림비의 構成比率를 參考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가장 큰 比率를 나타내는 利子は 育林費의 80%로 이는 생산기간이 장기간에서 오는 각종생산비의 複利計算에서 오는 결과라고 봐진다.

다음은 各種山林施業에 따른 勞賃이 12~15% 材料費가 3~5% 기타 감가상각

비 및 地代가 각각 0.4와 0.8%로 조사되고 있다. 이상의 數値는 日本의 몇가지 樹種에 대하여 調査한 平均値로 이때 育林費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利子이므로 육림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林業利率 특히 용자에 의한 利率이 정부의 어느 지원사업이든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育林費를 적게 하려면 利率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와같은 利子를 발생케하는 諸經費를 절감하는 일은 물론 投下資金의 回收期間을 단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게 된다.

그런데 育林費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利子發生은 주로 기간의 각종사업의 勞賃에서 발생하므로 작업의 종류에 따라 勞動量을 조사하여 그 절약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업별 노동량을 조사한 비율을 보면 植栽準備作業에 8% 植栽에 9% 下刈作業에 46% 가지치기에 11%로 育林費에 있어 勞賃의 主種을 이루는 施業은 下刈作業으로, 이에 所要되는 作業費를 절약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육림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대부분이 일반 農業勞動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다.

원래 산림사업은 伐採와 植栽가 保續적으로 동일지역에서 이루어 질때 伐採收入에 따른 造林撫育은 아무런 어려움없이 投資 運營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與件은 主伐에 의한 伐採는 적고 病虫害發生地와 산불被害地에 대한 造林 및 일부 樹種更新을 위한 地域으로 점차 新植地는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林業은 단순노동에 의한 更新도 계속되어야 함

은 물론이지만 이미 기간에 투자되어 이룩된 山林의 間伐을 위한 撫育施業에 투입될 林業勞動에 대한 對策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나타나는 農村의 分散되는 勞動力を 山林施業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며 專門化할 수 있는 勞動力の 再編成이 아쉬운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勞動力の 效果的인 再配置問題를 뒷바침하여 論議되고 있는 작업단편성과 운영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봐진다.

日本에서도 高度經濟成長이후의 不足한 林業勞動을 메꾸기위한 방법으로 地域勞動力を 專屬으로 고용하여 조직한 집단으로서 作業班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직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造林業事을 위해서는 造林作業班은 間伐과 伐採事業을 위해서는 常用作業班을 編成運營하고 있다.

작업반의 사업은 조합원의 사업뿐 아니라 그 지역산림사업에 대한 委託事業도 하고 있어서 林業生産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한 비중은 자못 큰것이다.

이와같은 작업반의 고용형태는 “森林組合”이 직접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와같은 작업반을 編成運營하고 있는 森林組合은 전체조합의 8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일부 勞務團體에 위탁하여 林業勞動을 하는 경우도 相當數있다.

또한 작업반에 종사하는 사람의 賃金體系는 대부분이 每月 月給으로 고정급료가 나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액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高度成長을 자랑하는 日本의 경

우 作業班運營에 있어서 그 어려움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勞務團體나 會社에 비하여 직장으로서의 안정성이 낮을 뿐 아니라 낮은賃金과 여러가지 사회보장제가 불충분한 점들을 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의 山林事業은 이와같은 전문적이고 항시 활용할 수 있는 作業團과 같은 조직을 통하여 林業 勞動運營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부 민간의 伐採業者를 中心으로 勞務團體가 운영되고 있는 例도 있으나 永久的인 사업단체라 보기에는 그 運營面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작업단은 산림조합의 一機構로서 編制運營되어야만 계속성있는 운영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事業이 본격화되어 운영이 되면 산주와 조합과의 관계가 관심있는 事業을 통하여 맺어지기 때문에 보다 신뢰할수 있는 나의 조합으로 그 인식도 새로워질것

이다.

이와같은 作業團이 成功的으로 運營되기 위해서는 작업단원에 대한 身分保障이나 社會保障制가 법적으로 定立되어 이들로 하여금 平生의 직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주변여건이 조성되고 이들에 대한 實質的인 待遇를 할 수 있는 뒷바침이 先行되어야할 것이다.

다음은 작업단운영에 있어서 年間 일할 수 있는 事業量이 확보 되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季節的으로 一時的인 사업으로 그치는 일이 되지않도록 사업계획이 樹立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地域內 山林에서 年間 均衡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내의 모든 사업이 종류와 量 및 時期등 관련있는 사항들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모든 山林施業을 전부 감당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企業山林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 031-01-231375

○국민은행 : 827-01-0037-647

한국독립가협회

권 오 진